

만화로 보는 '명상 주역 에케이' 29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건괰

– 위대한 지도자

건(乾)은 인간세계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물질계에서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에너지로 표상됩니다.



반면 곤(坤)은 인간세계에서 만물을 기르는 위대한 어머니로, 물질계에서는 현상화의 기초인 물질의 '질량'으로 표상됩니다.

주역 64괘중 오직 건과 곤만이 순수한 존재입니다. 다른 괘들은 모두 음과 양이 섞여있으나 건은 오직 양으로만 되어있고, 곤은 오직 음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중 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은 시작이고, 형통하며, 이름고, 굳건하다(乾은 元亨利貞하니라). “건의 도는 크게 통하고, 바르고 견고함에 이름다(乾道大通 利於貞固).”



傳에 '64괘로서 천하의 변화를 다 표현하였다(因而重之以盡天下之變)'고 하였습니다.



그중 건은 주역 64괘 중 가장 첫 괘로, '굳건하여 쉽 없이 행하는 것을 건이라 이르다(健而無息之謂乾)'고 하였습니다.



“또 건은 만물의 시작이며 따라서 건은 하늘의 도이고 양(陽)이 되며, 아버가 되고, 인군(人君)이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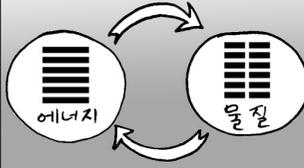
굳건하여 쉽 없이 행하는 것이 '건'인데, 그것을 만물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공자는 계사전에서 건지대사(乾知大始)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 없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만물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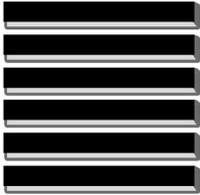


☰
||
만물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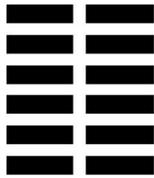
현대 물리학적으로 풀자면, 건은 에너지, 곤은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하는 에너지가 만물(坤)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상징인 곤이 극에 달하면 다시 에너지인 건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텅 빈 모습을 한 에너지인 건(乾)을 주역에서는 육효가 가득 찬 실(實)한 모습(음)으로 나타내고,



반면 내부가 딱 찬듯한 물질은 가운데가 텅 빈 곤(坤)으로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작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의 근육을 보면, 물질이라 여기는 근육은 평상시에는 부드럽지만 거기에 힘을 주면, 즉 가운데를 모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건이 들어가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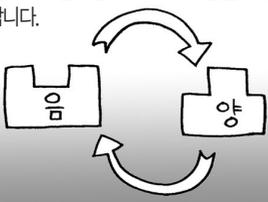
이렇게 건은 에너지 곤은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 현대물리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의 $E=mc^2$ 는 에 지가 바로 물질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역의 건곤을 아인슈타인 식으로 말하자면 건=곤 $\times C^2$ 인 것입니다.

$$E=mc^2 \quad | \quad \text{Hexagram 1} = \text{Hexagram 2} \times C^2$$

주역에서도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나타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나타나 서로가 순환하며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서로가 호환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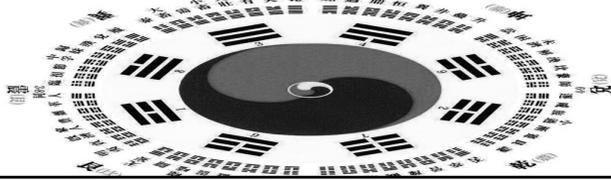
특히나 물질이 극도로 압축되면 질량과 회전속도, 전하량만 존재하는 거대한 흡입구멍인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지요. 기본적으로 물질은 속이 비지 않지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질량원통의 중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주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곤은 이와 같이 주위로부터 끌어당겨 모으고 수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운데가 빈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반면 건은 발산하고 움직이며 내뿜는 특성이 있는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굳건하여 쉼 없이 행하는 것을 건이라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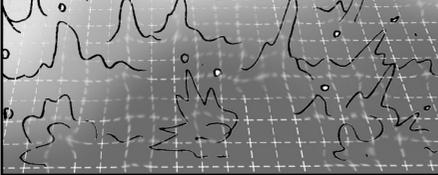
주역에서 극에 달한 음성인 곤(坤)은 이후 양성이 점점 자라나 결국 양성의 극인 건(乾)에 이르고, 건 이후에는 다시 음성이 점점 자라 곤에 이르는 끊임없는 순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크미의 세계인 마이크로 세계에서는 양자진공으로, 극대의 세계인 매크로 세계에서 별의 탄생과 소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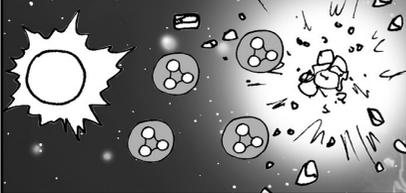
현대물리학에서 에너지의 근원인 양자에너지는 끊임없이 명멸합니다. 그것을 양자진공(量子真空)이라 하지요. 이 양자진공에서 전자와 양전자, 중성인 광자가 갑자기 생성되기도 하고 아무 자취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여 양자세계는 창조와 소멸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난다고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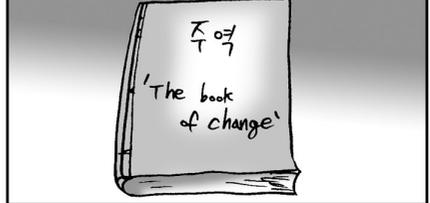
그 세계를 기반으로 이 단단한 물질세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괘 초효인 '잠룡(潛龍)'을 물리적으로 말하면 양자 진공 속에서 이진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양자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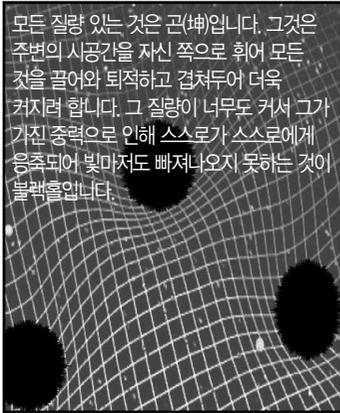
거시세계인 우주에는 별이 생겨났다가 다시 블랙홀이 되어 사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아주 빠르게 돌려본다면 그것은 바로 양자진공과 같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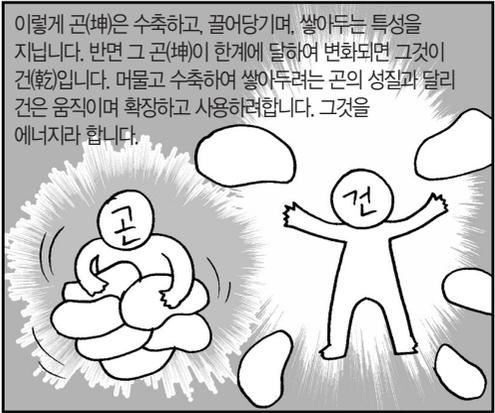
즉, 마이크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자진공의 현상이 매크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별의 탄생 및 소멸현상과 매우 닮아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영원한 순환! 이것이 주역을 '변화의 책(The book of change)'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모든 질량 있는 것은 곤(坤)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시공간을 자신 쪽으로 휘어 모든 것을 끌어와 퇴적하고 겹쳐두어 더욱 커지려 합니다. 그 질량이 너무도 커서 그가 가진 중력으로 인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응축되어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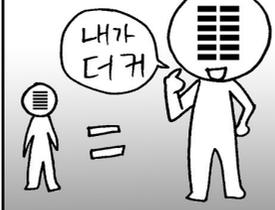
이렇게 곤(坤)은 수축하고, 끌어당기며, 쌓아두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 그 곤(坤)이 한계에 달하여 변화되면 그것이 건(乾)입니다. 머물고 수축하여 쌓아두려는 곤의 성질과 달리 건은 움직이며 확장하고 사용하려 합니다. 그것을 에너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乾)와 질량(坤)은 서로 변환되니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2$ 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에너지=질량인 것입니다.

에너지 = 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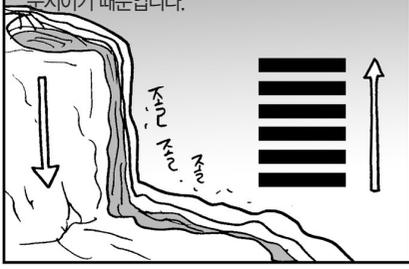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에 지인 건(乾)보다 질량인 곤(坤)의 힘이 8배만큼 막대하게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곤(坤)이 사실은 더 강대하다는 것을 이 물리세계에서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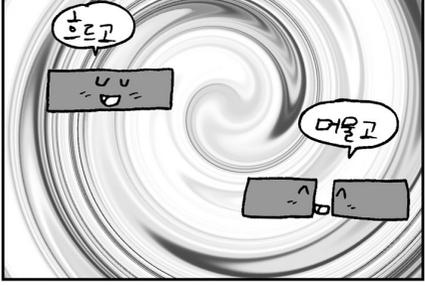
그것을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78장, 柔之勝剛)'라고 하였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주역의 괘에서는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것이 효가 생겨나는 순서이고 에너지 강도가 강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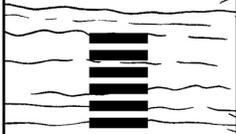
그중 양효는 흐르는 움직임이고, 음효는 멈추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음효와 양효가 섞인 일반 괘에서는 음효가 주 흐름인 양효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중심을 가진 소용돌이 모양을 띠니다.



이러한 양효와 음효의 움직임과 머무름의 예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유체역학을 이용하여 길 중간 중간에 회돌이 현상을 만들어 습진이 벽에 부딪히거나 빠르게 지나가지 않게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서 시 한수 읊을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물다 가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석정의 물길에 에너지 흐름이라면 중간 중간 생겨나는 회돌이는 머무름 중심인 질량의 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괘는 물 흐름에 회돌이가 전혀 없는 흐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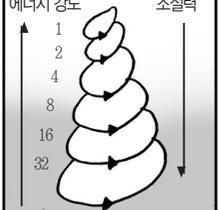
곤은 굴곡이 매 시점마다 있어 자기중심을 가진 회돌이들로 가득 찬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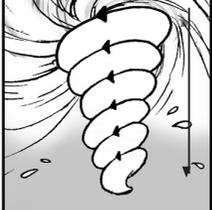
일반 괘는 흐름과 머무름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의 흐름
에너지 강도 ↑
1
2
4
8
16
32
조절력 ↓



음의 흐름



에 지로 가득 찬 끊임없이 흐르는 건괘의 기본 특성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형이정은 그 하나하나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역 64괘 중 오직 건괘와 곤괘만 가진 특성이기도 합니다.



원(元)은 으뜸이며 시작이고 봄을 의미합니다. 형(亨)은 풍요와 소통이라는 의미의 형통이며 여름으로 표상됩니다.



이(利)는 이로움이고 수렴이며 결실을 의미하는 가을로 표상됩니다. 정(貞)은 곧고 바름이며 거두어들이는 것을 저장하며 지키는 것으로 겨울로 표상됩니다.



즉 원형이정은 주역의 커다란 4덕이기도 하고, 만물의 생장수장(生長收藏), 계절의 순하추동이라는 우주적 흐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이 도는 크게 통하고, 바르고 견고함에 이름다(乾道大通 利於貞固)"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